

얼어붙은 부동산...인구이동 48년만에 최저

인구이동률 11.3%...통계 작성 이래 최저

감소율 16%...2008년 19.2% 이후 가장 커

지난 9~10월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가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동이 많은 20~30대 인구는 감소하고 이동이 적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만1000

명)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74년(39만4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2008년(-19.2%) 이후 가장 컸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 연속 내림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1.3%(47만6000명)으로 2.1%포인트(p)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단계적으로는 이동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동률이 높은 20~30대 인구는 11월 기준 전년보다 33만명이 감소했는데, 인구이동률이 비교적 낮은 60대 이상 인구는 53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1월 주택 경기 지표를 보면 9~10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 6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7000건)과 비교해 큰 폭(58.8%)으로 감소했다.

이런 주택매매 감소가 인구 이동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2%, 시도 간 이동자는 33.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0%, 11.8% 감소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3842명), 인천(2635명), 충남(1769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6405명), 부산(-1026명), 대구(-667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11월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세종(1.2%), 인천(1.1%), 충남(1.0%) 등은 순유입, 서울(-0.8%), 광주(-0.4%), 부산(-0.4%) 등은 순유출됐다. /뉴시스

장기 무주택 근로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 5점 배점을 3년~6년미만(3점), 6~9년미만(6점), 9~12년미만(9점), 12~15년미만(12점), 15년이상(15점)으로 배점 차등화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공고를 문자 알림 서비스 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고령화·코로나에 사망자

역대 최대...인구 36개월째 ↓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사망자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36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2013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6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늘었다. 사망자 수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폭도 2010년(9.3%)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다 보니 겨울철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85세 이상인 초고령자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컸는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위험 요인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보다 0.4%(-91명) 감소했다.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동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7명으로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매달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으면서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288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8% 쪼그라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마트, 올해 마지막 날·새해 첫날 'DAY1' 할인 행사. 이마트, 올해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 'DAY1' 할인 행사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DAY1'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는 2022년의 마지막날과 2023년의 첫날 이틀간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뉴시스

기아 오토랜드광주,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 시행 선언식

부품협력사와 함께 선행적 품질 대응체계 구축 결의



기아 AutoLand 광주(공공장 박래석)은 28일 높아지는 고객들의 품질 눈높이에 맞춰 '23년 AutoLand 광주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는 사전 유지관리 점검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품 불량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기

아와 협력사가 함께 설비관리, 용접, 금형, 작업표준, 출하 등 일상관리항목 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해 품질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품질 향상 활동이다.

이날 기아 AutoLand 광주는 대강당에서 박래석 공장장과 광주권 부 품질협력사 69社 대표와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고객의 품

질 요구 수준의 변화, 2022년 기아 AutoLand 광주 품질 수준, 협력사와 함께 앞으로 추구해야할 품질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객 품질 요구에 대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선행적인 품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아와 협력사가 함께 일상관리 협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기아 AutoLand 광주는 지난 11월 대상 협력사를 선정 했으며, 12월 일상관리 협약제 필요성 공유를 거쳐 내년 1월 기아와 협력사 합동으로 일상관리항목 점검 기준 정립하고 3월부터 협력사 자체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송중욱 광주은행장 "100년 은행 도약 기대"

30일 퇴임 앞두고 6년여 임기 자평과 소회 밝혀

30일 퇴임하는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8일 "취임 이후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며 성장의 여파를 이어가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면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타이틀을 넘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서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출신 최초 은행장으로 광주은행의 새로운 역사를 쓴 송 은행장은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과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고객에게 감사의 인사 전한다"며 6년여의 임기에 대한 자평과 함께,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제 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하는 자평출신 후배 고병일 은행장에게 바분을 남기고 신년 1월 1일부터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

기는 그는 임기동안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의 이상의 가치 추구' 이 주력해왔다.

특히 지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장경영, 지역의 특수성에 맞춤형 지역밀착경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중점에 두고 지역사회와 광주은행의 상생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한 기간 광주은행은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 200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며 창립 이래 최초 당기순이익 2000억원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와 금융위험 회 · 금융감독원 선정 2021~2022년 2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2022년 상반기 연속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 1위 등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 따른 굵직한 성과 거뒀다. /권형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광주고객센터 개소식

'지방 최초'...5년 동안 500여 명 지역 인력 채용·운영



인택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 27일 동구 금남로에 들어선 (주)카카오모빌리티 광주고객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최초로 문을 연 카카오모빌리티 광주고객센터는 이날 임 청장을 비롯해 이병훈 광주 동구청장을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청 박정환 경제창업실장, (주)카카오모빌리티 이수연 상무, (주)

효성ITX 박종영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축사, 테이프 커팅, 간담회 순서로 개소식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광주고객센터는 금남로 고엔타워 3층과 4층에 연면적 340평 규모로 고객상담실과 교육장, 휴게공간 등을 마련했다. 향후 5년 동안 500여 명의 지역 인력을 채용·운영할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투자유치 설명회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27일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는 약 331만㎡ 부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유치에 맞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분양 계획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 지역 중소기업, 광양시, 여수시 등 29개 기업 및 단

체에서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개요 ▲조성토지 분석 ▲시설계획 ▲사업지 경쟁력 ▲분양계획 ▲공사 및 분양일정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YGPA는 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자격심사와 사업제안서를 평가·합산해 최고득점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자산 100억 넘는 '토끼띠 주식부자' 60명

2023년 계묘년을 앞둔 가운데 국내 상장사 가운데 주식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토끼띠 주주는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이상이 1963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상장사 내 토끼띠 주식부자 및 CEO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토끼띠 주주는 60명으로 1963년생이 38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5년생(13명), 1951년생(7명), 1939년생(2명) 순으로 많았다. 1987년생 중에서 100억원대 주식부자는 없었다. 토끼띠 주주 중 주식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다. 1963년에 태어난 서 회장의 이달 23일 기준 주식평가액은 2조3866억원으로 토끼띠 주주 중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내년 1월도 '떡구름' 지속

BSI 4개월 연속 하락...내달 업황전망 BSI는 '65'

내년 1월에도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떡구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소재 5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기업의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BSI: Business Survey Index)는 65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72) 이후 9월 71, 10월 70, 11월 69 등 4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다음달 업황전망BSI도 64로 전월(66)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기준치(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이하인 경우에는 적음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 12월 중 제조업 매출BSI는 73으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매출전망BSI도 70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중 제조업 신규수주BSI는 80으로 전월에 비해 8포인트 상승했

다 다음달 신규수주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의 12월 비제조업 업황BSI는 75로 전월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중 비제조업 매출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으나 다음달 매출전망BSI는 77로 전월과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중 비제조업 자금사정BSI는 76으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으나 다음달 자금사정전망BSI는 73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권형안 기자